

## 동아시아 '계급연대론'의 기원

- 고토쿠 슈스이의 직접행동론과 민족문제 -

임 경 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1. 동아시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원

동아시아에서 국경과 민족을 넘어 노동자, 농민들의 대연합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그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계급적 연대론의 기원은, 서구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때를 같이 한다. 그 도입의 중심에는 메이지 시대 말기 일본의 혁명가인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가 있었다.

1901년에 제국주의 비판서인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를 간행하며 사회주의자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는 10년 후인 1911년에 대역사건, 즉 천황 암살 미수라는 명목으로 사형에 처해졌을 때에 무정부주의자로서 인생을 마친다. 그가 다급하게 내달렸던 생의 마지막 10년 세월은, 청일전쟁으로 대만이라는 첫 번째 식민

주제어: 고토쿠 슈스이, 계급연대, 직접행동론,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Shūsui Kōtoku,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direct action, nationalism, anarchism

지를 획득한 대일본제국이 영토팽창을 위한 제국주의의 길을 강화해 가다가 급기야 러일전쟁을 일으켜 1904년에 한반도 전토를 점령했고 1905년에 대한제국을 보호국화, 1910년에는 마침내 강제 병합을 한, 바로 제국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였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나날이 심각해지자, 국가적 차원에서는 천황의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애국심을 더욱더 강요하여 국내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식민지 획득 전쟁을 통해 사회모순을 봉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던 고토쿠 등의 혁명세력은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을 배경으로 체계화되어 갔던 사회주의를 이식하여, 변별정권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에 저항하는 변혁운동을 정열적으로 전개했다. 우선 노동조합운동이 처음 움을 터뜨렸고, 사회주의의 연구와 이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회를 통한 평화적인 혁명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당정치에 개입하고자 했다. 러일전쟁의 광풍이 불었을 때는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해서 러시아 동지들에게 계급적 연대를 통해 제국간의 충돌을 저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 사회주의운동 탄압이 더욱더 극심해지자 의회 정책을 통한 평화혁명론을 비판하는 투사들이 결집하여 자각된 노동자들의 총파업 등에 의한 직접행동을 호소하며 혁명운동을 보다 급진화시켜 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고토쿠 슈스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서 현실의 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정치·경제, 사회조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근대적 의미의 혁명이었다.<sup>1)</sup> 변별정

1) 고토쿠는, 주로 주권자나 천자를 경질하는 역성혁명을 뜻했던 중국 기원의 ‘혁명’과 달리 자신들이 말하는 혁명이 Revolution의 번역어이며, “주권자의 변경 여하에는 집착하지 않고 정치조직, 사회조직이 근본적으로 변혁되”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幸徳秋水, 『獄中から三弁護士宛の陳辯書』, 幸徳秋水全集編集委員會 편 1994; 고

권의 타파와 민주정치의 확립이 혁명사상이었을 때 그는 자유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결국에 좌절로 끝나자, 의회정책 중심의 사회주의운동에 누구보다도 정력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의 모진 탄압에 직면하면서 혁명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자 이윽고 노동자 계급의 직접행동을 주장하며 무정부공산주의라는 세계혁명 기획에 투신한다. 사회주의자에서 무정부주의자로의 그의 변신은 어디까지나 혁명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발로였다.

그런데 그의 사상의 궤적 속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것은 그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즉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 정신에 철저한 사상가이자 혁명가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회주의자로서의 고토쿠는 민족주의가 군사주의와 결합하여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세를 떨치던 와중에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애국심을 비판하고 계급적 연대에 기초한 반전사상을 고취시켰다. 또한 무정부주의자로서의 그는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계급의 직접행동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국제혁명을 주장했다. 그로 인해 사회주의 사상사의 관점에서 “일본, 조선, 중국 인민 연대의 시작은 고토쿠 슈스이,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가타야마 센(片山潜) 등 메이지기 사회주의자의 투쟁에 있다”(吉岡吉典 1965: 287)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아시아적 시대상황에서 이 노선은 과연 바람직했는가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 오류가 지적되어 왔다.<sup>2)</sup> 즉 제2인터네셔널의 영향권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중시하고 있던 고토쿠 슈스이 등의 초기사회주의자들은, 아시아 피억압 민족들의 반제민족독립투쟁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의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아시아의 다른 혁명가들과 달리 계급적 해소

토쿠 슈스이 2011: 515). 따라서 그가 사회주의 사상이나 무정부주의 사상을 일본에 도입한 것은 일본에 ‘혁명의 근대’를 출현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 고토쿠 슈스이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오류였다고 최초로 비판한 것은 이시모다 쇼유타(石母田正 1953).

주의나 계급적 국제연대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로 급격히 치달아 갔던 일본의 부패한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실상과 한계를 일찍이 직시할 수 있었던 억압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견해도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레닌의 민족이론을 반영하여, 지배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식민지, 반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과의 연대투쟁을 정식으로 채택한 1920년 코민테른 제2회 대회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특히 「공산주의 인터네셔널 가입조건」의 제8항인 “제3인터네셔널에 소속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정당은 식민지에서의 ‘자국’ 제국주의자의 기도를 가차 없이 폭로하고, 식민지의 모든 해방운동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지하여 이 식민지들에서 자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추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자국 노동자의 마음속에 식민지나 피억압민족 근로주민에 대한 형제와 같은 감정을 기르고, 자국 군대 안에서 식민지 민족의 모든 억압에 반대하여 계통적인 선동을 행할 의무가 있다” 등을 받아들여, 1922년 7월에 일본공산당이 창당되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 조선, 중국 연대의 새로운 투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대중적인 연대투쟁으로 크게 발전했다”(石母田正 1953; 吉岡吉典 1965: 308-309)<sup>3)</sup>고 여겨지고 있다.

확실히 동아시아 인민의 연대투쟁사에서의 고토쿠의 위치는, 그 투쟁을 뒷받침하는 서구 혁명사상을 도입한 인물로서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며, 그 사상을 서구열강과 일본에 의한 (반)식민지화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던 아시아적인 상황에 맞게 전개한 사상가는 아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러일전쟁에 뒤이어 발생한 1905년 러시아혁명에

3) 아울러 조선인과 일본인의 최초의 대중적 연대투쟁은 1922년 니가타 수력발전소 공장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잔인하게 학살된 것에 항의하여 벌인 운동에서 찾는 것이 정설이다(片山潛 1960: 80). 하지만, 일본에 레닌의 제국주의론이나 민족자결론이 이론으로서 수용되기는 했지만, 조선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체계화나 논리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石坂浩一 1993).

영향을 받거나 그 직후에 국가 권력의 절대 억압을 투옥이라는 형태로 체험하면서, 기존의 의회 정책적 사회주의 운동 노선에 회의를 품게 되어 직접행동론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민족, 국가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혁명의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에 다가감과 동시에 아시아로도 급격히 다가갔다는 사상 전환의 궤적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적어도 일본이라는 국가, 민족에 대한 그의 절망에서 촉발된 이 사상의 전환이 초래한 아시아로의 개안과 그 의의는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직접행동론으로 혁명사상의 입각지를 정한 이후에 고토쿠가 아시아와 관련하여 민족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계급연대론의 전략을 확인하고, 그 사상의 현재적 의의를 역사적으로 다시 제고하고자 한다.

## 2. 피억압 민족의 내셔널리즘에 관하여

그런데 고토쿠의 사상은 아시아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에 한정해보아도, 1910년대 도쿄 유학중에 약소민족 출신의 유학생들과 반제를 지향하는 비밀결사인 신아동맹당을 조직하고 20년에 국내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하여 사회혁명당을 조직하고 이후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거치면서 국내 사회주의운동의 헤게모니를 잡았던 김철수 그룹이나(박종린 2008), 노령을 대표했던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김립, 계봉우 등이 고토쿠의 『사회주의 신수』(社會主義神髓, 朝報社, 1903) 등의 독서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현주 2011). 하지만 이 저서에 담겨 있는 사회주의 이론 자체는 당시의 시대적인 제약을 반영한 한

계가 뚜렷하여 본격적인 사회주의혁명 이론서로 보기는 어렵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결함은, 그것이 계급국가론에 대한 이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성격이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결락시킨 위로부터의 혁명 이론이었다는 점이다. 고토쿠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의 임금노동자를 기본적인 계급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노동계급은 사회주의혁명의 주체적·중핵적 존재는 아니었다. 당시 초기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한 당면목표가 의회정체를 방침으로 하는 보통선거권의 획득이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정당은 부패한 부르주아정당을 대신하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나 보통선거, 노동자 및 소작인 보호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요구를 현실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고토쿠의 이와 같은 보통선거 획득에 의한 합법적 의회주의의 입장은 러일전쟁 무렵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sup>4)</sup> 『사회주의의 신수』에서 고토쿠는 책머리에 『공산당 선언』의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를 인용하면서도 결국에 “세계 인류의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중시하고 진보를 바라는 어질고 의로운 지사(志士仁人)는 일어서라. 일어서서 사회주의의 보급과 실행에 매진하라”(고토쿠 슈스이 2011: 304-305)고, 다수의 노동자가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에게 혁명의 실천을 호소하며 책을 맺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 당시 일본의 노동계급의 열악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무시할 수 없다. 광공업 노동자나 운수통신 노동자를 포함해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비율이 2%에 못 미쳤으며, 그것도 도쿄 주변에

4) 예컨대 1904년 3월에 발표된 「러시아사회당에 보내는 글」에서 고토쿠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자들의 전투 수단은 헌법과 의회에 기초하여 도리나 언론을 통한 평화의 투쟁이어야 하며 무력은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幸徳秋水, 『與露國社會黨書』, 『週刊平民新聞』 18, 1904년 3월 13일; 고토쿠 슈스이 2011: 338).

는 육해군의 직영 제철소나 방적공장의 여공들이 존재했고, 광산 노동자들은 지방에 점재해 있어서 연대가 거의 불가능했다. 더욱이 겨우 생겨난 노동조합도 조합운영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이미 1899년 봄을 정점으로 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이듬해 1900년 3월에 제정 공포된 치안경찰법은 걸음마 단계의 노동조합운동을 사실상 붕괴로 이끌었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양적인 열세, 낮은 집중도, 저조한 노조 조직률 등으로 노정된 근대적 공장노동자의 미발달이라는 현실적 제약 이상으로 고토쿠를 사로잡았던 것은, 백성을 구하는 것이 사대부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기초한 신분의식이었다. 그는 이미 끝나버린 자유민권운동의 주도세력이었던 도덕적인 지식인인 ‘어질고 의로운 지사(志士仁人)’를 계승하여 ‘진리, 정의, 인도’를 자각한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자를 각성시켜야 한다는 반체제적 계몽가로서의 사명감으로 초지일관하였다. 즉 유교적인 정치사상이 노동계급에 대한 능동적인 파악을 저해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와 같은 전통사상이야말로 자본주의 발달이 뒤쳐져 있던 당시의 많은 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호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시아의 혁명가들이 천하국가를 위해 자기희생적인 도덕적 지식인으로서의 지사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서적 자체에는 당시에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던 조선의 혁명가들의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서술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이현주 2011). 혹은 신채호가 1928년에 무정부주의 활동으로 체포되었을 때 고토쿠의 『장광설』(長廣舌, 人文社, 1902)을 읽고 무정부주의에 공명했다고 진술한 것도(이호룡 2001: 74), 고토쿠 사상의 수용이 식민지 조선이라는 피억압민족의 독립문제와 거리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문제와 연결된 사회주의사상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코민테른의 국제공산운동의 방침을 공유

하면서 비로소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확실히 고토쿠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각을 가진 이래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고, 1904년에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사회주의자의 눈에는 인종의 구별도 없고, 지역의 구별도 없고, 국적의 구별도 없다”(『與露國社會黨書』, 『週刊平民新聞』 18, 1904년 3월 13일; 고토쿠 슈스이 2011: 337-338)고 쓴다든지, 당시 일본에 체류중이던 중국의 혁명가들이 1907년에 결성한 사회주의강습회에서 “저는 일본인이지만,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종지(宗旨)가 다른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외국인이라도 종지만 같다면 아주 친한 친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른바 국경 의식은 절대로 품고 있지 않습니다”(『社會主義講習會第一次開會 幸徳秋水君 演說稿』, 『天義』 6, 1907년 9월; 고토쿠 슈스이 2011: 421)(1907년)라고 하는 등,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철저했던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고토쿠는 내셔널리즘을 제국주의의 기원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이미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에서부터 피억압 민족의 독립투쟁은 인정하고 있었다.

진실로 고결한 측은지심과 자선의 마음은 결코 자기와 가까운지 아닌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위급한 아이를 구할 때 우리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를 묻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탓에 세계만방의 어질고 의로운 지사(志士仁人)들은, 트란스발의 승리와 부활을 기원하고 필리핀의 성공과 독립을 빌었다. 그 적국인 영국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적국인 미국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애국심은 과연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애국자나 국가주의자는 십중팔구 트란스발을 위해 기도하는 영국인을 애국심이 없다고 매도할 것이다.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는 미국인을 애국심이 없다고 매도할 것이다. 맞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애국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결한 동정, 측은, 자선의 마음은 확실히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애국심은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저변의 인심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다.『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 警醒社書店; 고토쿠 슈스이 2011: 33)

고토쿠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열강에 의해서 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트란스발과 필리핀을 우물에 빠진 아이에 비유하고, 약소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을 자신과의 친소(親疎)를 불문하고 위급한 아이를 구하려는 순수한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인 측은지심에 비유하여, ‘허영과 과장과 경쟁심’일 뿐인 애국심과는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논리를 특히 러일전쟁 이후의 조선의 상황으로 가져가면, 고토쿠가 영국이나 미국의 사회주의자를 일본의 사회주의자로서의 자신과, 트란스발과 필리핀을 조선과 동일시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고토쿠는, 적어도 사회주의자로서 자각한 후에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줄곧 비판했던 것이다.<sup>5)</sup> 여기에서 위급한 아이의 자기방어권, 즉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개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토쿠가 ‘존황양이’, ‘개국친취’, ‘민권자유’ 등의 이상 아래 근대국가를 성립시킨 청일전쟁 이전까지의 메이지의 역

5) 혁명가 고토쿠 슈스이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영토팽창 야욕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거의 유일한 세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사회주의자로서 자기변혁을 추구한 데에 있다. 사실 사회주의자로서 자각하기 이전의 자유민권 운동가 시절의 고토쿠는 민의에 기초한 정당정치 실현을 이상으로 삼았었고, 민의로서의 국민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차원에서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조선을 일본의 확실한 세력권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청일전쟁 전후로 정당들이 변별정권과 유착하며 부패해가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이익의 실체는 소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이익을 희생시킨 결과임을 깨닫게 되고, 이윽고 ‘국민’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던 착취받는 무산계급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야욕에 맞서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산계급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웃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무산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저 없이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비판자임을 자임했다(石坂浩一 1993).

사를 ‘자유, 평등, 박애’로 향하여 나아간 진보의 역사로 평가한 것도 이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理想なき国民』, 『萬朝報』 1900년 5월 14일 『長廣舌』에 수록); 고토쿠 슈스이 2011: 196-197) 즉 제국주의시대에 약소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이 진보성을 띠고 있으며 타국을 침략하거나 예속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사상이 측은지심에 비유되어 있는 이상, 피억압 민족은 억압 민족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동정과 자선의 대상일 뿐, 반제투쟁을 위한 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자명하다.

### 3. 무엇이 아시아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가?: 러시아 혁명과 직접행동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의자 시절의 고토쿠는 자국의 독립이 진보를 위해 필요했고 제국주의 시대의 내셔널리즘이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단계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에 입각해서 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동정했고, 그의 비판의 화살 또한 제국주의 열강과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선 자국 일본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국가권력의 혹독한 탄압과 자신의 투옥, 그리고 러시아혁명을 경험하면서 그는 국가조직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여 내셔널리즘에 대해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이윽고 그 국가조직의 바깥에서 ‘민생의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여 무정부주의로 다가가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혁명을 위한 연대의 대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토쿠는 필화사건으로 1905년 2월부터 5개월간 투옥된다. 집회 및 연

론출판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절대억압을 투옥이라는 형태로 체험하게 된 그는, 국가제도가 이상사회 실현에 결코 바람직한 조직이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 한편으로 투옥 직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의회정책적 사회주의운동노선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어 직접행동론으로 급격히 다가갔으며 사상적으로도 무정부주의로의 전환을 이룬다. 그는 감옥에서 미국의 아나키스트 운동가 앨버트 존슨이 보내준 크로포트킨의 저작 『전원, 공장, 작업장』(Fields, Factories and Workshops) 등을 숙독했으며, 출옥 후 존슨에게 “사실 나는 처음에 마르크스파 사회주의자로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출옥할 당시에는 급진적 무정부주의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塩田庄兵衛 1990: 399; 고토쿠 슈스이 2011: 383)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전환은 그로 하여금 천황권력을 상대화하게 만들었다. 사실 고토쿠는 사회주의자가 되기 전까지는 열렬한 천황숭배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으며, 『사회주의 신수』의 부록 「사회주의와 국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자가 된 후에도 만세일계의 황통을 국체로 삼는 천황제와 현실 사이에 전혀 모순을 느끼지 못했다.(『社會主義神髓』, 朝報社; 고토쿠 슈스이 2011: 316-319) 고토쿠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의 변혁으로만 파악하고, 정치제도의 변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사회주의를 군주제와도 공화제와도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민중을 사회주의제도에 의한 수혜자로만 인식할 뿐, 그들의 국가로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참가나 주권의 귀속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했던 것이다.

그런데 1905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과 투옥이라는 경험은 고토쿠의 천황관에 균열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미 러시아 동지들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직접 소개받거나 하면서 러시아 혁명운동의 전개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표권이나 동맹파업 등

을 무기로 하는 경제상의 혁명 못지않게 폭력을 사용하는 정치상의 혁명이 중요한데, 러시아혁명에서는 암살(폭력)수단보다는 동맹파업이 훨씬 공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폭압적 전제정치 아래에서는 이 두 혁명운동이 동시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露國革命が與ふる教訓』, 『直言』 2-3, 1905년 2월; 고토쿠 슈스이 2011: 375-381).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투옥까지 경험하면서 그는 일본의 사회주의운동의 현실을 차츰 전제국가 러시아의 상황과 겹쳐 가기 시작했다.<sup>6)</sup> 그는 무상의 권력자를 부정하며 천황제와의 대결자세를 명확히 해 간다. 또한 위에서 인용한 존슨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구미여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그 목적 중의 하나로 “천황의 독수(毒手)가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천황을 비롯하여 그 정치조직 및 경제조직을 자유자재로 논평하기 위해”(塩田庄兵衛 1990: 400; 고토쿠 슈스이 2011: 383)서라고 들고 있다.

고토쿠는 1905년 11월에 존슨의 초대로 미국 여행길을 떠난다. 그의 미국방문은 7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민주의적 사상과 보통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한 합법적 운동방침에서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은 상호부조에 기초한 무정부공산주의 사상과 직접행동론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외유중에 미국의 좌파 인사들과 폭넓게 사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암살 등의 폭력적인 수단도 불사하며 러시아혁명을 이끌었던 러시아 사회혁명당의 당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노동자들의 총파업이나 무장봉기 등의 직접행동에 의한 혁명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노동자들에 의한

6) 1904년 12월 30일자 존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토쿠는 “나는 군주제의 변혁을 선동한 까닭에 야만적인 정부에 기소되어 5개월형의 판결을 받았”고, 더욱이 『공산당 선언』을 번역한 탓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쓰면서 일본의 천황제 정부는 러시아의 전제군주제와 완전히 똑같다고 언급했다. 원문은 “Is it(=Japanese Government) not quite same to Russian despotism?”(塩田庄兵衛 1990: 397)

세계적 혁명의 기운을 읽어낸다. 그는 체재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평민신문』의 후속지인 『히카리』(光)에 보낸 글에서 노동혁명이 러시아를 단초로 하여 세계로 번질 것이며, 이러한 시대에 부르주아의 지배제도인 “내각, 선거, 정당, 대학, 종교 따위”는 무용지물이므로, “일본의 노동자여, 일어서라. 나아가라. 그리고 스스로 이루어라. 앞으로의 세계는 그대들의 세계가 아닌가”(『一波萬波』, 『光』 1-9, 1906년 3월 20일; 고토쿠 슈스이 2011: 388)라고 외친다. 여기에서 비로소 고토쿠는 사회혁명 실행의 주체세력이 노동자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사회주의혁명 주체로 간주했던 어질고 의로운 지식인은 “우리는 우리 노동자와 함께 끌어안고 도래할 혁명의 맹렬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리라”(『一波萬波』; 고토쿠 슈스이 2011: 389)라고 하여, 나로드니키의 전통을 음으로 양으로 계승했던 러시아 혁명가들과 더욱더 강하게 겹쳐 가기 시작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러일전쟁 이후에 공황과 물가폭등이 민중의 생활권을 위협하자, 고용기회가 축소된 노동자들은 전시를 통해 집중된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노동운동도 가열되어 1906년부터 1907년까지는 조선소나 광산 등 국가자본과 독점적 자본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끊이지 않았고, 종종 폭동화되어 군대가 출동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연이었다. 이와 같은 민중의 다양한 에너지의 분출 속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게 된다. 국내의 정세불안을 이용하여 새로이 성립한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내각은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종래의 탄압정책을 그치고 사회주의도 또한 세계의 일대 풍조이니만큼 선불리 경찰력으로 탄압하지 말고 오히려 온건한 것은 잘 선도하여 국가의 진운에 공헌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인 방침을 새로이 발표하여 어느 정도 운동의 자유와 합법성을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1906년 2월에 일본사회당이라는 일본최초의 합법적 사회주의 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국내의 정세변화를 외지에서 전해들은 고토쿠는 병든 몸을 이끌고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다. 그리고 일본사회당 주체로 열린 귀국 환영회에서 그는 사회주의 운동방침을 둘러싼 당내 대립의 계기를 만드는 연설을 한다. 일본사회당은 “국법의 범위 내에 사회주의를 주장”(당칙 제1조)할 것을 방침으로 보통선거의 실현과 의회의 다수 획득을 통한 사회주의의 합법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운동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과 국정이 가장 닮았다”고 하여 고토쿠 자신도 포함한 일본의 대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본보기로 삼았던 독일 사회당의 의회정책론을 채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귀국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고토쿠가 당원들 앞에서 행한 연설은 독일식 의회정책론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의회제도로 사회당이 체제내화하면 곧바로 부패하기 쉽고 입법을 통한 사회조직의 근본적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독일과 같이 노동자들에게 시혜적으로 부여된 선거권은 전제의 광풍이 불면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독일을 무단전제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회정책을 대신할 사회적 혁명의 수단방책으로 고토쿠는, 폭탄에 의한 암살 등의 대항폭력을 “19세기 전반의 유물”이라고 하여 단호히 부정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을 환기시키고 그 단결 훈련에 힘”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직접행동, 즉 총동맹파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서구 각국의 게으른 잠을 흔들어 깨운 러시아의 혁명적 동맹파업”이 거둔 커다란 성과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게 사회주의운동의 주요 참고 틀이 독일 사민주의자들의 정책에서 러시아 혁명가들의 활동으로 옮겨갔음이 이로써 천명된 것이다.(『世界革命運動の潮流: 錦輝館に於ける演説の大要』, 『光』 1-16, 1906년 7월 5일; 고토쿠 슈스이 2011: 394-399)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러시아 사회혁명당의 혁명운동

이었다(飛鳥井雅道 1969).<sup>7)</sup> 고토쿠는 혁명적인 정당이 선거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할 때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는데, 그에 반해 사회혁명당은 의회정치에 참가하면서도 입헌정치의 이름에 현혹되지 않고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평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은 “혁명을 천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연의 기운, 즉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의향이나 감정, 세력이 모이거나 붕괴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sup>8)</sup>

이와 같이, 고토쿠는 주로 러시아혁명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의회정체론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를 대신하는 전술로서 직접행동론을 수용하면서 비로소 노동자계급을 혁명의 주체로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ノートヘルファー 1980: 247-248; 飛鳥井雅道 1975: 406). 한데 이에 더하여 본고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로의 사상적인 전환을 이룬 고토쿠에게, 이제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혁명적 상황과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혁명세력들이 연대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고토쿠는 이미 러시아혁명 발발 직후에 “제군들이여, 기억하라. 20세기 초두의 러시아는 거의 19세기 초두의 프랑스와 같다. 서구 여러 나라의 혁명이 항상 프랑스의 신호를 기다린 것처럼, 이제 동양의 여러 망국들은 러시아혁명의 신호를 보고 부활하기를

7) 아스카이(飛鳥井 1969)에 의하면, 당시 러시아 사회혁명당은, 예를 들면 제2인터네셔널 암스테르담 대회에 대의원을 31명 파견한 데 비해 사회민주당은 6명(볼셰비키는 2명)에 그쳤으며, 해외지부가 영어권에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토쿠가 러시아혁명의 주도 정당으로서의 사회혁명당에 강한 관심을 가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직접행동으로서의 노동자들의 총동맹파업과 함께 적색 테러의 이미지를 가진 사회혁명당에 경도되었던 직접행동파가 정권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 대중투쟁의 전망을 잃자 ‘원수암살’에의 접근을 보이게 되었다고 보았다.

8) 幸徳秋水, 『政黨に就て』, 『新紀元』 11, 1906년 9월 10일; 幸徳秋水全集編集委員會 1994.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지나를 보라, 조선을 보라. 우리들이 어찌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俘虜諸君に告ぐ」, 『直言』 2-7, 1905년 3월 19일)라고 하며 중국과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의 혁명가들의 궤기를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1907년부터는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국인 혁명가들, 그중에서도 특히 장병린(章炳麟), 류스페이(劉師培), 장지(張繼), 허쩐(何震) 등과 같은 중국동맹회의 반쑤원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기 시작한다. 그 교류의 개시를 전후하여 고토쿠는 “사회당의 운동은 만국운동이다. 인종이나 국경의 구별은 없다. 나는 일본과 지나의 관계도 독일과 러시아의 그것과 아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나의 혁명주의자들이 일본의 사회운동가와 악수하고 제휴하는 것은 멀지 않을 것이다. 유럽 전체의 사회당이 거의 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동양 각국의 사회당도 마찬가지로 일체가 되어 기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강조는 필자에 의함. 이하 동일)”<sup>9)</sup> 고 하며 구체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연대를 구상하게 된다. 고토쿠에게 이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 제2의 러시아혁명의 후보지로 비쳤던 것이다.

#### 4. 무엇이 아시아의 혁명세력을 강화하는가?: 계급적 연대와 민족해방운동 사이

고토쿠의 아시아 혁명세력의 연대 전략에 대한 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글은, 1907년 말 요양을 위해 고향인 도사(土佐)로 돌아갔을 무렵에 쓰인 「병환 중의 망언」(病間放語, 『高知新聞』 1908년 1월 1일자)이다. 고토

9) 幸徳秋水, 「大久保村より」, 『日刊平民新聞』 66, 1907년 4월 4일; 幸徳秋水全集編集委員會 1994.



쿠는 도사의 젊은이들을 향해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혁명의 기운이 농후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을 돌려 중국을 보라. 한인(漢人)은 결코 ‘빈사의 병자’가 아니다. ‘잠자는 사자’는 이제 막 깨어나려고 한다. 문명의 도입은 국민적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민주 사상, 권리 사상, 혁명 사상을 양성하여 중류 자체가 서로 이끌여 혁명 운동에 투신하는 상황이 마치 1860년대의 러시아 혁명 운동의 초기를 방불케 하는 감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 등에 유학하거나 망명한 혁명당 청년 다수에 이르면, 이미 구시대의 만주인 배척, 중국 회복, 헌정 창시나 공화 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이른바 민생주의, 즉 사회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자가 없고, 가장 진보한 자들에 이르면 공산적 무정부주의 혹은 개인적 무정부주의조차 열심히 창도하여, 끊임없이 수만 권의 잡지나 소책자를 그 본국으로 밀수입하고 있다. 이리하여 중국이 머지않아 세계 혁명사 상의 제2의 러시아가 되리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자라면 결코 의심하지 않는 바다[...].

필리핀인, 안남인, 조선인 중에 또한 기개가 있고 학식이 있는 혁명가가 결코 적지 않다. 그들의 운동이 단지 한 나라의 독립, 한 민족의 단결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동안은 그 세력이 아직 보잘것없을지라도, 만약 동양 각 민족의 혁명당이 안중에 국가의 구별이 없고 인종의 구별도 없이 곧바로 세계주의,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대연합을 형성하기에 이른다면 20세기의 동양은 실로 혁명의 천지가 될 것이다.(『病間放語』, 『高知新聞』 1908년 1월 1일; 고토쿠 슈스이 2011: 435-437)

그는 동양 각 민족의 혁명가들이 지금의 권력계급인 국가, 정부, 자본가, 귀족 등에 절망하여 바야흐로 혁명의 기운으로 충만해 있고, 정치 조직, 사회 조직 등의 체제 바깥에서 민생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하며 혁명의 기운을 전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혁명 운동이 민족 독립 운동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 한 일대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세계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혁명은 연대를 통해 일대 세력이 되어 동양은

‘혁명의 천지’가 된다는 실천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연대는 반전운동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 즉 권력계급이 애국심을 선동해서 탐욕을 채우는 한편으로 경제적 부담과 희생은 무산계급에게만 강요되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막는 길은 무산계급의 국경을 넘는 연대밖에 없다는 생각과 깊이 맺어져 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고토쿠는 그 실천으로, 비슷한 시기에 무정부주의 사상을 통한 연대 전략을 제일 중국의 혁명가들에게도 설파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류스페이와 장지 등이 1907년 6월에 창설한 사회주의강습회 제 1회 모임에 초청되어 행한 연설에서 고토쿠는 “무정부당을 보면 내셔널리즘과 적대하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는 세계 만국을 하나로 간주하여, 이른바 국경도 없거니와 민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같으면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념이 다르면 원수처럼 서로 다룹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전망하고, “중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념을 신봉한다면, 앞으로 두 나라 국민은 함께 상호부조하며 상호운동할 수 있습니다. 강고한 연합이 생긴 후에 무정부주의의 실행을 촉진하는 것, 이것은 전부터 제가 강하게 희망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자기의 정부를 없애면 일본과 구미 등의 인민들도 연이어 각자의 정부를 없애으로써 침략을 막아 진정한 반군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기정부 전복론’이라고 할 만한 세계혁명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社會主義講習會第一次開會 幸徳秋水 演說稿』, 『天義』 6, 1907년 9월; 고토쿠 슈스이 2011: 420-432) 그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무정부주의의 실현을 상상했던 것이다.

확실히 고토쿠가 중국을 비롯한 위기에 처한 아시아 각국에 러시아의 혁명적 상황을 투영하면서 아시아의 혁명세력들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구상했던 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노선의 의회정책론

에서 무정부주의에 입각한 직접행동론으로의 사상적 전환이라는 내적 동기가 있었다. 한데, 그 외에도 당시 재일(在日) 아시아 혁명가들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개한 연대의 움직임이라는 직접행동파를 둘러싼 외부상황과 연동되어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어 온 것은, 1907년 여름에 중국의 반쑤원과 혁명가들을 중심으로 인도, 필리핀, 조선, 일본 등의 아시아 혁명가들이 결집하여, 제국주의적 침략에 반대하고 상호부조하여 아시아 민족의 독립을 달성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결성된 아주화친회(亞洲和親會; Asiatic Humanitarian Brotherhood)이다. 아주화친회의 입회규정은 ‘아시아인으로 침략주의를 주장하는 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를 불문하고 모두 입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제국주의 범아시아 연대의 측면이 강했는데, 이 모임의 일본 측 참가 그룹은 고토쿠를 중심으로 한 직접행동파들이었다. 실제로 아주화친회 결성과 비슷한 시기에 직접행동파들은 의회정책파들과 함께 조선 문제에 대한 반제국주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sup>10)</sup> 하지만, 아주화친회는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항한다는 목표는 일치하지만, 그 달성을 위해 약소국들의 민족적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고토쿠 등의 국제연대의 혁명 전략과는 명확히 차이가 난다. 물론 ‘상호부조’가 강조되어 있거나, 모임의 궁극목표가 아시아연방의 결성이었다(竹内善作 1948)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읽을 수 있겠지만(李京錫 2005: 100),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토쿠는 명확히 전략의 차원에서부터 국가의 벽을 넘는 연대가 아니면 혁명세력은 결코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양자 사이에는 확실히 제국과 (반)식민지 사이의 위상의 차이가 엄

10)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자유, 독립, 자치의 권리를 존중하여 이에 대한 제국주의적 정책은 만국 평민계급의 공통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여, 이에 일본정부는 조선의 독립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한 책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東京社會主義有志者決議』, 『大阪平民新聞』 1907년 7월 21일)

연히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고토쿠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을 비판했던 이시모다 쇼(石母田正 1953)는 “피압박 민족은 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자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자기의 독립주권을 확립하는 것, 즉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 없이는 민족해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진보와 혁명도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주장한 것이다. 또한 그런 한에서 민족과 애국심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토쿠는 “제 민족들의 사회적 해방의 전제가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의 해방에 있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당연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따라서 반제 투쟁의 방대한 민족적 에너지를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커다란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토쿠의 동시대에 이와 같은 방침을 채택한 이상적인 예로 이시모다는 ‘아주화친회’를 들고 있으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을 결집하고자 하는 방침이 이 단계에서 혁명세력을 강대하게 만들어 피압박 민족을 해방하고 각 민족 내부의 혁명도 성공시킬 세력을 결집할 만한 유일한 방침임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이다”라고 단언했다. 물론, 고토쿠 등의 직접행동파의 아시아 연대 전략도 아주화친회의 범아시아 반제동맹의 시도도, 일본정부로부터의 혹독한 견제와 탄압 속에서 1908년에 장지 등의 중국 혁명가들이 일본을 떠나면서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민족독립의 열망이 공산주의운동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던 20년대 이후의 식민지 조선은 그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이시모다는 “슈스이의 경우에는 피압박 민족의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 해방과 독립 투쟁의 과소평가가 있었던 점, 따라서 거기에서는 올바른 세력의 결집과 통일전선의 방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슈스이를 비롯해서 메이지 말기의 사회주의자가 지배 민족으로서의 일본의 사회주의자이고, 피압박민족의 혁명가가 아니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커다란 약점이 되었던 것”이라고 정곡을 찌

르는 비판을 했던 것이다.

이시모다의 비판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초 두에 제기되었던 고토쿠의 계급연대론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이지 초기의 변혁의 열기가 식은 후의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배타적이고 침략적이고 반동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절망한 당시의 고토쿠가 내셔널리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세우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혁명과 분리되어 버린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 전략이 사상적으로도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흘러버린 역사적 사실들을 지켜본 우리에게 고토쿠의 사상은, 그의 역사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현재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 5. 아시아 계급연대론의 21세기적 의미

고토쿠는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한 청일전쟁 전후부터 중국이나 조선 등의 아시아 정세에 대해, 일본정부의 취해야 할 길을 시사하며 때로는 열강의 중국분할에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것을 기대하거나 조선을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확실한 세력권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론을 표명하기도 했다(川上哲正 1999; 石坂浩一 1993). 하지만, 러일전쟁이라는 정세변화와 함께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각을 굳히고 러시아혁명을 거치며 무정부주의자로서의 자기변혁을 꾀한 후에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책론에서 전환하여 혁명가로서의 실천운동 속에서 아시아를 바라보게 되자, 중국이나 조선의 혁명적인 기운 등이 포착되었다. 자국 일본의 부르주아적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타락해가면서 억압 민족이 되어 가는 광경을 목도하고 민족주의에 대한 환상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고토쿠에게 아시

아와의 연대의 폭이 열렸던 것이다. 그가 아시아의 계급적 연대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그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민족주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 중국에 한정해 본다면, 이 국가들은 더 이상 피억압민족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타민족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한다. 오히려 “동아시아만큼 이 근대 국가라는 질곡이 인민을 옥죄는 곳도 달리 없다.” 지금의 삼국의 실상은, “100년 전 고토쿠 슈스이가 맞부딪혔던 일본 국가라는 현실의 지속 아니 그 확대판”이 되어 버렸다고까지 파악되기도 한다(장석준 2011). 또한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자본의 글로벌화와 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변용시켜가며 양극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켜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의 틀을 넘어선 계급적인 연대를 통해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전략이 절실히 요청될 때, 그 기원으로서의 고토쿠의 혁명사상과 실천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 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토쿠 슈스이(2011), 임경화 역, 『나는 사회주의자다: 동아시아 사회주의의 기원, 고토쿠 슈스이 선집』, 교양인.
- 박종린(2008),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사회주의사상 수용과 ‘김철수그룹」, 『사림』 30, 수선사학회.
- 이현주(2011), 「계몽주의 민족해방운동사 서술과 사회주의」, 『한국학 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호룡(2001),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 飛鳥井雅道(1969), 『幸徳秋水: 直接行動論の源流』, 中央公論社.
- 飛鳥井雅道(1975), 『幸徳秋水集』, 筑摩書房.
- 李京錫(2005), 「平民社における階級と民族: 亞洲和親會との関連を中心に」, 梅森直之 편, 『帝国を撃て: 平民社100年国際シンポジウム』, 論創社.
- 石坂浩一(1993), 『近代日本の社会主義と朝鮮』, 社會評論社.
- 石母田正(1953), 『續歴史と民族の発見: 人間・抵抗・学風』, 東京大学出版会.
- 片山潜(1960), 「日本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 『片山潜著作集』 제3권, 片山潜生誕百年記念会.
- 川上哲正(1999), 「幸徳秋水のみた中国」, 『初期社会主義研究』 12, 弘隆社.
- 幸徳秋水(1905), 「俘虜諸君に告ぐ」, 『直言』 2-7, 1905년 3월 19일.
- 幸徳秋水全集編集委員會(1994), 『幸徳秋水全集』 6, 日本図書センター.
- 塩田庄兵衛 편(1990), 『幸徳秋水の日記と書簡』, 未來社.
- 竹内善作(1948), 「明治末期における中日革命運動の交流」, 『中国研究』 5, 現代中国学会.
- F. G. ノートヘルファー(1980), 竹山護夫 역, 『幸徳秋水: 日本の急進主義者の肖像』, 福村出版.
- 吉岡吉典(1965), 「日、朝、中三国人民連帯の伝統」, 『アジア・アフリカ講座』 제3권(日本と朝鮮), 勁草書房.
- 장석준(2011), 「100년 전의 경고 “아시아 인민의 적은 ‘국가’다!”」, 『프레스리안』,

2011.9.23.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10923132732](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10923132732).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1일

심사 완료일: 2011년 1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4일



ABSTRACT

---

The Origin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in East Asia  
- The Direct Action Policy of Shusui Kotoku and the National Problem -

Lim, Kyoung-hwa

Shusui Kotoku was a Japanese socialist of the 1900s. He was influenced by the 1905 Russian Revolution and also experienced oppression by the national authority. He became disillusioned with a socialist movement based on parliamentary politics and came to embrace direct action, recreating himself as an anarchist by discarding the frameworks of state and nation. Through this ideological transformation, he embraced the proletariat class as an agent of revolution and Asia as a whole. Projecting the revolutionary conditions of Russia upon Asia, including China, Kotoku became convinced that the class solidarity of Asia would strengthen the revolutionary movement. However, his strategy failed without much support. But its importance cannot be ignored. This article analyses how Kotoku recognized the national problem after he came to embrace direct action as the basis of revolutionary ideology in his contemporary context and explains his class solidarity strategy and his relevance today.

